

삼성, Dichloromethane “울상”

중국, 6개국 수입제품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 2006년까지 적용

중국이 2002년 6월20일 한국을 비롯해 영국, 미국, 네덜란드, 독일산 Dichloromethane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이후 2년이 지나 계속 규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Ministry of Foreign Trade & Economic Cooperation(MFTEC)은 2000년 12월20일 덤핑방지 및 특별보호 방지법에 의거해 5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Dichloromethane을 반덤핑 혐의로 조사키로 결정한 바 있다.

2001년 8월16일 MFTEC가 실시한 예비조사에서는 실제 덤핑사례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중국시장에도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MFTEC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MFTEC은 예비판정 이후 경제무역위원회와 생산기업 및 외국기업을 상대로 실사에 착수했고 덤핑사례들이 중국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결론과 함께 반덤핑 추정범위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영국, 미국, 네덜란드, 독일, 한국산 순도 99% 이상의 Dichloromethane(수입관세 코드 29031200) 수입 제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기로 결정했다.

Dichloromethane 관련기업 및 반덤핑 관세율

국 가	구 분	관세율
네덜란드	Akzo Nobel Base Chemicals BV	9%
	기 타	57%
미 국	Vulcan Material Company	53%
	Vulcan Material Company(producer)/BP	49%
	Chemical Trading Company(supplier)	
	기 타	58%
한 국	삼성정밀화학	4%
	기 타	28%
영 국	Ineos Chlor Limited	6%
	기 타	39%
독 일	German companies	66%

자료) Ministry of Foreig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of China

덤핑방지관세는 한국의 삼성정밀화학이 4%로 가장 낮고 영국 Ineos가 6%, 네덜란드 Akzo Nobel이 9%로 낮은 편이며, 미국이나 독일산은 49-66%로 매우 높게 결정됐다. 한국산도 삼성이 아닌 다른 제품은 28%가 부과됐다.

덤핑방지관세 적용은 2001년 8월16일부터 앞으로 5년 동안 계속되는데 한국 Dichloromethane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조사기간 동안 프랑스산 Dichloromethane은 총 수입량의 2.6% 밖에 되지 않아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화학저널 2004/09/24>